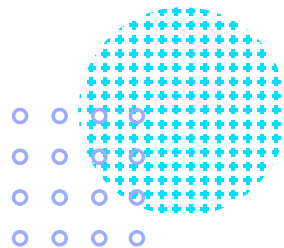


우림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이룹니다.



♡ 따뜻한 이웃 행복한 성장 즐거운 소통 더불어 삶



2020년 어려운 시기에도

면목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에

힘을 받아서 잘 견뎌내고 대응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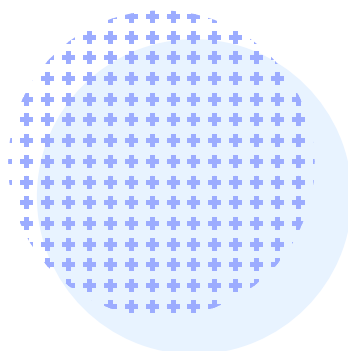
새해에도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의 역할을 잘 해나가며

주민들과 더불어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이루어가도록 힘쓰겠습니다.

2021년 늘 건강하셔서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김영미 관장 외 직원 일동 드림



발행처

면목종합사회복지관

02257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

TEL 02 436 0500

FAX 02 439 5111

발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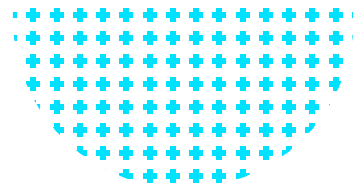
김영미

편집

배성민 박민아 윤석호 권수민 이주영

디자인·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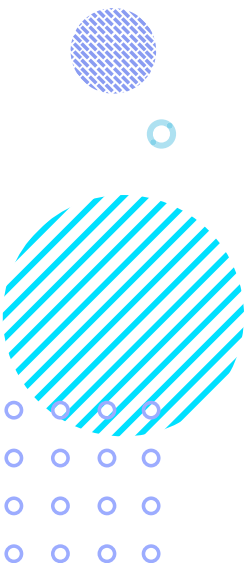
타라그래픽스



CONTENTS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이룹니다

♡	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보는 면목이야기	04
따뜻한 이웃	코로나 특집	08
	코로나19로 달라진 복지관의 일상	
	‘함께 뜨개방’ & ‘아름다운 사람들’	12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어르신들의 다양한 보호와 지원, 돌봄으로 함께합니다	1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마스크로 멀어진 거리, 마스크로 가까워지는 거리	16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음 전하기 캠페인	
행복한 성장	청년맞춤지원 ‘온앤오프’ & 청년진로가다듬기 ‘목청’	18
	청년자립지원사업	
	열정의 아동기획단	20
	학령후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놀이공간조성사업	
	사례관리 상담 보개기!	22
	실무자 사례관리 워크숍	
	마을 곳곳 달콤한 과일향기	24
	꿈을주는과일지원사업	
즐거운 소통	따로 또 함께 가족요리활동	26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응능력향상 프로그램	
	‘꿈’을 향한 도움닫기, 가족연합캠프	28
	꿈꾸는 아이들 지원사업	
더불어 삶	엄마같은 마음으로 더...	30
	후원자활동지원사업	
	사랑의샘터 ECB & 면목데이케어센터	31
	수상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32
	후원자, 자원봉사자	



사진으로 보는 면목이야기

복지1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년남성모임 '면반장'

안전바/방충망 설치, 형광등/수도꼭지 교체, 번기수리 등! 올해도 어김없이 '면반장'이 출동해 우리 이웃을 위한 집수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면반장' 출동합니다.



면목4동 고독사예방을 위한 이웃살피미 워크숍

면목4동 주민들이 앞장서서 고독사예방을 위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주변 이웃을 살피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면목4동 이웃살피미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세요!



복지관 뒷마당에 새로운 화분이 한가득

'생명UP마음UP' 어르신들이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4동 주민분들이 한 마디씩 거들어 주신 덕에 겨울 배추 농사까지 알뜰히 마무리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정서지원 프로그램 '서울여행'

홀로 마을 밖을 나서기는 힘들지만 여럿이 모여서 다함께 콧바람도 쏘이러 가고, 오순도순 대화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어르신 나들이 모임 '서울여행'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면목이야기

복지2팀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용마중학교 2·3학년 학생들과 함께 '마스크로 멀어진 거리, 따뜻한 말로 가까워지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활복지캠페인 '들려주세요, 마음 이야기'

오거리 공원에서 화분 나눔을 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움, 우정, 감사, 사랑, 희망 등의 이야기들이 모였어요! 화분과 함께 서로의 마음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질문 **‘이음 프로그램’을 하면서 등대를
바라보는 마음과 행동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신경 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의 여가를 가지고,
옆도, 뒤도 돌아보는 것 같아요.**”



살맛나는 우리동네 ‘이음’

총 13개의 이음 가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살맛 나는 동네란? 이음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음을 하고 나서 느끼는 변화는?”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이음 가게의 이야기! 이음은 열려 있으니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면목7동 주민자치회 교육공동체분과 활동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들의 재능 나눔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새로운 이웃들의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면목이야기



복지3팀



발달장애인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비상' 평가회

10/31(토) 비상 마지막 평가회! 참여자는 직업훈련을 하면서 배움, 소망, 감사한 내용을 편지에 담아 낭독했습니다. 부모들은 참여자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며 사랑 선물을 바구니 안에 듬뿍 담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비상



면목3·8동 고독사예방을 위한 이웃살피미 워크숍

면목3·8동에는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이웃살피미가 있습니다. 지난 7/16(목) 면목3·8동주민센터 주관으로 이웃살피미 분들과 어떻게 마을에 힘을 모을 수 있을지 대안을 찾아보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과 인사! 그것이 시작입니다.



면목동Artist 미술치료프로그램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오전은 미술로 힐링하는 날입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걱정도 사라집니다. 함께 그림 그리실래요?



더욱 편리해진 아름인도서관

전산시스템으로 도서를 관리하게 되어 대출과 반납, 자료 검색까지 바코드를 이용해 휘리릭! A~F 서가 구역이 생기니 원하는 책을 찾아 보기 쉬워졌어요. 새로운 책들이 다수 입고되었으니 추운 겨울에는 '도서관곡', '집콕' 독서 어떠세요?

사진으로 보는 면목이야기 📷

운영지원팀



코로나19 극복, #면목 직원 #덕분에 이벤트!!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어렵게 사업을 수행해나가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직원 간 감사와 칭찬을 나누며 관계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면목 직원들의 '오늘은 힐링데이'

직원 간 친목을 다지고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한 오늘은 힐링데이!! 사랑해, 눈부시다, 한템포 쉬! 세 팀 모두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4층 강당방음 공사

기능보강공사로 4층 강당 방음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층 강당에서 복지관 이용주민들의 신나는 노랫소리가 들리고, 즐겁게 춤을 출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오픈채팅방을 통한 고충수렴 및 처리,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복지관의 일상

2020년 연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더니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복지관 출입문을 닫고, 비상(탄력운영)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직원들은 복지관에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설 소독, 이용자 안부 묻기, 전화상담, 물품 전달, 대체식 지급, 도시락 배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드릴게요.

1:1 가정방문



• 상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은 꾸준히 지속하였는데요, 기관으로 오시거나 담당자가 방문할 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상담을 진행했고, 직접 대면을 불편해하시는 분들과는 전화상담을 통해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 도시락배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배달 어르신들께서 항상 마스크 착용, 손 및 배달 자동차 소독, 외부활동 자제 등 방역 생활 수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안부를 묻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받는 도시락은 그 어느 때 보다 배달 받는 어르신들께 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 물품 지원

어려운 시국을 함께 이겨내고자 코로나19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을 풍성히 보내주셨습니다. 방역 마스크부터 시작해 집에서 더운 여름 건강히 나시라고 서큐레이터와 다양한 식료품까지! 면목당은 이웃들의 사랑으로 2020년을 건강하게 보냈습니다.

워킹스루 방식 프로그램 도입



● 어르신들의 날 맛이 어르신 행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된 10월! 어르신들의 날 맛이 선물전달 및 워킹스루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근심 격파, 3초간의 댄스타임, 안마와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즉석 사진까지! 1분 남짓도 안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추억을 남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 경로식당, 주 1회 대체식 배분

주 1회 6일치 대체식을 어르신들에게 전달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 아침 대체식을 포장했습니다. 따뜻한 식사는 아니지만 든든히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당일 오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연락드려 안부를 여쭙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대신 대체식을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 장애인가정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젝트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 우울감, 관계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가정이 외식 및 문화지원을 통해 추석 기간 동안 가족·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온라인 진행



• 칼림바 가족연주단

올해 칼림바 가족연주단은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화상 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하여 전문 강사님의 동영상과 담당자의 진행으로 칼림바에 대한 기초교육과 연주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칼림바를 배우고 가족이 함께 연주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색다른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온라인 유키즈온더블럭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놀이터에서 아동들과 놀이 축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로윈을 맞이하여 온라인 놀이축제로 유키즈(U-kids)온더블럭이 진행되었습니다. TV프로그램인 유키즈온더블럭 포맷으로 아동들은 ZOOM에 접속하여 직접 문제를 내보기도 하고 정답을 맞히기도 하였습니다. 할로윈 분위기 속 MC들의 분장과 진행으로 각자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긴급돌봄유지



• 면목데이케어센터

센터 내 모든 일과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에 따라 변했습니다. 차량탑승 전 손소독과 열체크, 문진표 작성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센터에 들어서면 바로 손소독을 실천합니다. 가림막이 설치된 자리에 앉아 1m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활동에 참여하십니다. 매년 진행하던 나들이와 산책활동 등 모든 외부활동은 중단되었지만 불링, 공·고리 던지기, 요리교실, 관내에 있는 도서관 나들이 등 집콕 놀이처럼 다양하게 진행해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화와 방문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어르신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거리를 제공하며 모니터링 했습니다.

프로그램 소규모 진행



● 비상 직업훈련

발달장애인 청년 참여자가 1~2명씩 파견되어 6개 상점에서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여자들은 사장님에게 실제 업무를 배워 직접 실무를 익히고, 손님에게 인사하며 직업에 필요한 기본태도를 익혔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으로 다양한 성장을 보여준 참여자들! 현장에서 직접 배운 훈련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 중장년 1인가구 발굴

‘2020서울솔루션즈’ 서울시 용역사업을 중랑건강동체 주관으로 우리 복지관, 녹색병원, 마을넷, (주)다른도시와 협업하여 중랑구 중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실직, 관계 단절, 고립으로 위기가 가속화된 복지사각지대 중장년 1인가구를 발굴하고 상담하여 의료·경제·정서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중랑구에 중장년 1인가구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고 11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 중랑건강공동체, 어르신 동네모임

복지·마을·의료영역 31개 기관이 협력하여 6월에 중랑건강공동체를 발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양극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면목3·8동에 살고 계신 건강 취약 어르신들의 동네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심리적 위축, 관계망이 약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자기건강을 관리하고 생활의 활력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손뜨개 모임 ‘함께 뜨개방’



복지2팀 배성민 주임

2015년부터 뜨개질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손뜨개 모임 어르신들에게 2020년은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중랑구 마을공동체 씨앗기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내 뜨개 공방을 알게 되어 가까워서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뜨개방의 활동, 함께 보시죠!



“나무는 몇 그루인지,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네~”



“선생님~ 이렇게 뜨는 거 맞는지 한 번 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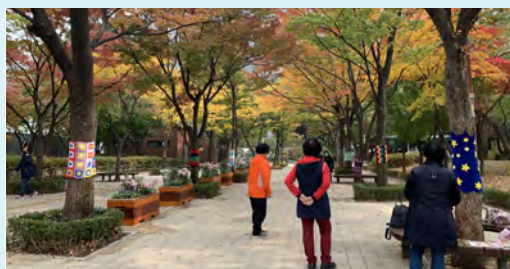
“하나씩 이렇게 완성했어~ 예쁘지!”



“치수가 맞나 한 번 돌려보자고.”



“아까 둘러보니까 나무리를 이렇게 하면 나무에 꼭 맞겠더라고.”



“나무야 나무야 따뜻하지?”
“우리가 뜯은 옷이 나무를 이렇게 안고 있네!”

이번 겨울, 코로나19로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나눔으로 용마폭포공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잠시나마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행복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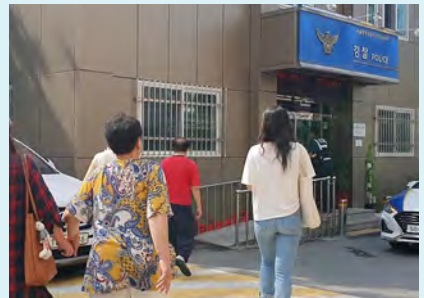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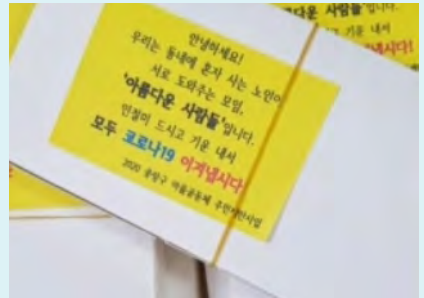
복지3팀 박민아 사회복지사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 70~80대 혼자 사는
노인들이 서로 돕는 모임입니다.

중랑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지도 3년 차.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 동네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더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경찰서, 주민센터,
녹색병원, 약국 등에 깜짝 방문하여
갓 찢낸 인절미 떡을 응원 문구와 함께 전달했지요.

몸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마음은 뿌듯하고 기쁩습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었던 일하기에
함께 모인 이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즐겁게 웃으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보호와 지원, 돌봄으로 함께합니다

운영지원팀 최영주 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 ❁ 개인별 필요,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 ❁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요.
- ❁ IOT 첨단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안부확인을 진행해요.
- ❁ 생활 권역별 운영(면목종합사회복지관 3권역- 면목4동, 7동, 면목3·8동, 면목5동)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로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현장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는 생활지원사를 소개합니다.



면목4동
유은경 생활지원사

1월 초 낮은 곳에서 달라진 일을 하는 것이 걱정되면서 첫 출근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일한 소감을 쓰고 있노라니 감회가 새롭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올해부터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유사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개편되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수의 어르신들을 안전, 안부 확인, 후원품 연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다 어르신 개인별 상황, 욕구와 필요 정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어르신들도 만족해하셨고 나도 한층 더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었다.

만들어 놓은 음식을 어르신께서 맛있게 드시고 한층 건강해진 모습, 깨끗해진 집에서 삶의 활력이 생긴다. “어느 자식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준다”하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눈물 글썽이며 말씀하실 때 더욱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기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다.

올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과 대면하여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말벗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어르신들께서 부디 힘든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셔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더 힘을 얻고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면목3·8동
윤남이 생활지원사

2020년은 12년 6개월 동안 몸 담았던 직장을 떠나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로 일을 하게 된 설렘과 도전의 해였다.

새로운 시작이 그렇듯이 겸손함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어르신들을 섬기겠다고 다짐도 하였다. 하지만 유래없는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 어르신들과의 대면 방문이 어렵게 되고 주로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소홀함이 있을까봐 늘 긴장하였다.

이용자 중 김OO어르신께서는 최근 더욱 악화된 무릎의 통증과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교회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자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맛이 없어서 식사도 하실 수 없다고 우울함을 호소하셨다. 그래서 매일 통화를 하며 많은 대화를 하였고 인근의 병원 정보도 알려 드리면서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렸더니 많은 위로가 되었다 하시며 식사도 조금씩 하게 되었고 무릎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러 다니다 12월 수술을 앞두고 있다.

얼마 전에는 콩나물과 버섯 키우기 키트를 지원해 드렸더니 잘 키워서 콩나물국과 된장국도 끓여 드셨다며 즐거워하셨다. 요즘은 전화를 드리면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며 “보고 싶다고 언제 올거냐”고 물으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코끝이 찡했었다.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셔서 대하기가 어려웠던 분이였기 때문이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어도 늘 부족함이 따르지만,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는 생활지원사로 일하고 싶다.



마스크로 멀어진 거리, 마스크로 가까워지는 거리

복지2팀 이주영 사회복지사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며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 마음에 함께 공감하며 동참해주셨습니다.
직접 마스크를 만들고, 손편지를 작성하여 주변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나눠줄 마음으로 한땀 한땀 기쁨으로 바느질했어요.
이렇게 좋은 마음 나누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했어요.
나눠주니 다들 너무 고맙다고 기뻐하셨어요.
저 또한 기쁨이 배가 되는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자 A -

“아이와 함께 마스크 만들기 신청해서 만들면서
오랜만에 바느질하면서 다정하게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네요. 코로나19 다함께
지치지 말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함께 이겨나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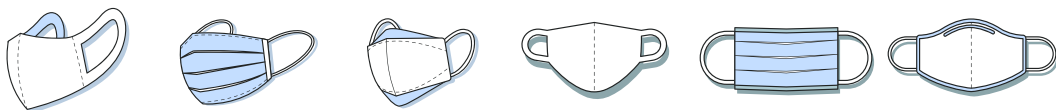
- 참여자 B -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집에서 이런 뜻깊은 활동으로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른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어요.”

- 참여자 C -





“마스크 만들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분이 계셨어요.
그동안 오고 가면서 인사만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예쁜 마스크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었어요.
요즘 같이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에서 주위분들과 마스크를 전하면서
한번 더 웃음 지어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모두 힘내고 파이팅하세요!”
- 참여자 C -

“이웃 사람들 오가며 만나는데 조금이나마 나눔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웃 사랑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참여자 D -

“내가 만든 마스크를 누군가가 써준다고 하니
만드는 도중에도 보람찼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달하니 더욱 더 뿌듯했다.”
- 참여자 E -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음 전하기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위로와 따뜻함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역 주민들로 인해 더욱 따뜻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변화와 활력

복지2팀 김영선 사회복지사

온! 온앤오프는 자기돌봄, 심리정서, 진로모색, 일 역량강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앤! 앤드(and) 사회로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적응이나 진로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모집합니다

오! 오알(or) 미취업 상태이거나, 졸업유예자, 휴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청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프!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청년분들 언제든지 환영해요

자기돌봄 프로그램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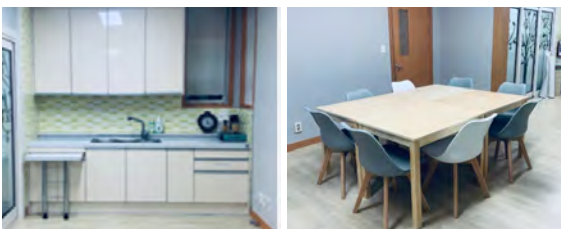
건강한 두부면 스파게티 만들기, 하리보 비누 만들기, 현미 수면안대 만들기, 즐거운 보드게임을 진행했어요.

진로모색 프로그램에서는



진로 찾기 상자 활동, 마인드맵, 진로모색 연구, 진로 찾기 포스트잇 활동을 진행했어요.

우리 청년들만의 끈끈한 공간!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청년이음센터중랑 안에
우리 청년공간이 마련되었어요!
중랑청년을 위해 꾸며진 공간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매듭짓던 날(feat. 회고하기)

복지2팀 배성민 주임

2020.01.07. ~ 2020.11.09

'진로고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종량구 청년들이 복지관에 모였어요! 목청 2기!

목청은 진로고민이 있는 종량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각자가 가진 진로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결해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엇을 보고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그것은 OO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가 있는 목청, 이런 관계를 경험해보니 어떠신가요?”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미래가 여전히 막막하긴 한데, 처음에는 완전 암흑이었다면 지금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힘이 생겼어요. 목청 참여하면서 '나를 아는게 진짜 중요하구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별명으로 부르더라도 사회복지사님 같고 우리를 케어해주실 것 같고 리드해 주실 것 같고 그랬는데 하나 하나 저희한테 다 물어봐 주시고, 다들 동등한 입장으로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해보고 싶은 것을 남들 앞에서 좀 더 말할 수 있게 된 거? 예전에는 말을 안하고 저 혼자만 알고, 저 혼자 하다가 포기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같이 하니까 말을 하게 되잖아요.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해보려고 노력하게 돼요. 말을 하니까 주변에서 도움도 주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목표를 너무 크게, 큰 목표를 세우니까 막막하게 느껴졌다면 진로모색을 통해서 월, 주, 일 단위로 세부적으로 앞으로를 계획해보니까 언젠간 못할 것도 아닌 일이나 싶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예전에는 뭘 해도 안될거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었다면, 지금 그래도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던 진로 방향을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롭게 탐색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목청 멤버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니 제가 많이 전체적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참여하는 거, 대화하는 거, 기술 같은 거 모두요.”



“일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은 자아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그냥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의 전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혹시 언니쓰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 보면 꿈 지원금이라고 평상시에 해보고 싶었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돈도 지원되지만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되게 으쌰으쌰 하면서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제가 뭘 말하면 이거 할 수 있다. 저거 할 수 있다. 용기를 얻었어요.”

목청 2기, 바쁜 일상 속에서 각자가 가진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고맙고 좋았습니다.

한 번 목청은 영원한 목청! 우리 곧 또 만나요 ~

열정의 아동기획단

복지3팀 김유진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우리는 중랑구 초등학교 4~6학년을 대표하는 '열면놀이터' 아동기획단입니다~!
올해 우리는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였는데요,
아동기획단을 하며 느꼈던 생각과 소감을 인터뷰로 모았습니다.



박진희
(5학년)

Q1 아동기획단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동기획단 다 같이 우수기관견학 갔던 것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특히 거기에 있던 미니 볼풀장은 비밀공간 같은 기분이 들어 디자인워크숍 때에도 만들었는데 실제로 열면 놀이터 디자인에 반영이 되어 너무 기대돼요!”

Q2 열면놀이터는 어떤 놀이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 놀이터가 환상의 놀이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구들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놀이터니까!
열면놀이터 짱~! 얼른 완성되면 좋겠어요.”



이수연
(6학년)



김연주
(6학년)

Q3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열면놀이터가 만들어지는 공간에 있던 공부방을 다니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내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곳을 내 생각으로 내 또래 4~6학년 친구들이 좋아하는 놀이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Q4 아동기획단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리더쉽이 생기고 생각이 창의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이끌 수 있게 된 것 같고, 무언가를 쓸 때 혹은 만들 때 당연한 것이 아닌 조금 더 추가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김수진
(6학년)




이다은
(5학년)

Q5 아동기획단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동기획단 장점은 서로 배려가 많다는 거요!! 또 원래 알던 사이처럼 잘 지낸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활동하면서 너무 잘 맞으니깐 더 빨리 놀이터(디자인)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아동기획단의 장점인 것 같아요.”

Q6 열면놀이터는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저는 집에서 심심하게 쉬고 있는 친구들이나 뭔가 특별한 놀이터를 새롭게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오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놀이터는 다른 놀이터보다 신기하게 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채연
(5학년)


한은별
(4학년)

Q7 놀이터가 열리면 무엇이 가장 기대되나요?

“캠핑카로 만들어질 휴식공간을 가장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놀이터 모형을 만들었던 공간이기도 하고, 완성되면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Q8 아동기획단의 의견 중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놀이터 디자인의 70%는 아동기획단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비밀의 공간과 벽지 등 아동기획단이 함께 투표해서 결정된 결과로 디자인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어요사나
(5학년)


윤가온
(6학년)

Q9 놀이터에 온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놀이터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은 건 각자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열면놀이터 아동기획단이 정성껏 만들고 그래서 하나를 딱 골라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고민해본다면! 저는 그물놀이터가 가장 기대가 되네요!”

Q10 놀이터가 열리면 무엇이 가장 기대되나요?

“내 친구 은별이와 언니 오빠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은별이와 나 챙겨줘서 고마워 아동기획단 활동 중에도 언니 오빠 덕분에 즐거웠어.
아동기획단 마지막까지 파이팅!”


주가은
(4학년)



사례관리 상담 보개기!

복지1팀 김정연 팀장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강점관점을 기반으로 이용자(주민)의 더 나은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활동으로 주민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좀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위하여 실무자들과 함께 사례관리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사례관리TF에서 기획회의를 공리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상담에 있어 직원들의 고민은
무엇일지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워크숍!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1교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긴장을 풀어봅니다.

2



2교시부터는 본격적인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강점 사정을 위한 초기상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조별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봅니다.



그리고 역할극을 하면서 각자 상담방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생생한 연기가 현장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강점 발견하기, 예외 상황 발견하기, 신뢰감 드리기 등 많은 내용을 토대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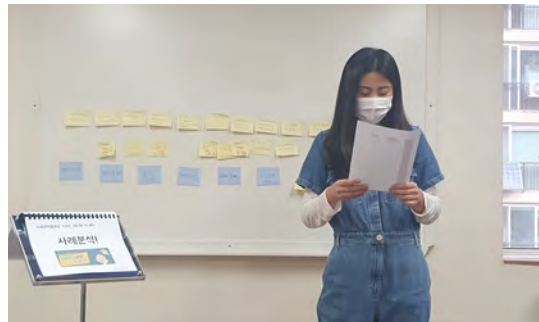
3

3교시는 이용자 욕구를 찾기 위해 상담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치열하고 열정적인 토론 후, 4교시로 넘어갔습니다.

4



4교시는 사례분석 시간입니다. 과거 기관에서 개입했던 가정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어떤 개입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강점을 찾고, 이웃 관계를 확인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방식으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상담을 위한 Q&A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 하였습니다.
4시간 동안의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는데, 직원들의 관심과 열기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성장을 위한 학습은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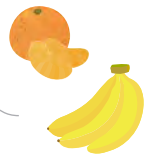
늘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강점을 찾아 돕는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마을 곳곳 달콤한 과일향기

복지1팀 이은영 대리



중랑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곳곳에서 달콤한 과일향기가 퍼집니다.
꿈을주는과일재단의 후원을 받아
총 5개 민관기관이 힘을 모아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는 50가정에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일이 도착하면 포장 장소로 이동하고,
과일 박스를 만들고, 크고 단단한 과일부터
박스에 순서대로 담습니다.
혹여 상한 과일이 있을까 살피고
골라 가지런히 포장을 완성하면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꿈을 주는 과일박스 완성!”





과일과 더불어 1년에 여섯 차례,
아이들이 직접 읽고 싶다고 의견을 모아준
'꿈을주는도서'도 함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꿈도 쑥쑥, 마음도 쑥쑥!
연말에는 독후감 대회도 열고
글짓기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공백없이 매월 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 '꿈을주는과일'
필요한 가정들에 꼭 맞는 지원으로
2020년에도 2021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로 또 함께 가족요리활동

복지1팀 이은영 대리



토요일 가족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해바라기'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복지관에서 모여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떤 활동을 준비하면 만나지 못해도 부모님과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특성을 살려 참여자가 주도하는 가족요리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중국과 베트남에서 오신 어머님 두 분을 일일 강사로 초대하였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어떤 메뉴를 선정하면 좋을지,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재료 준비는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여쭙고 상의했습니다.

“선생님, 중국요리는 불과 기름을 거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요리할만한 메뉴가 거의 없어요. 대신 간편하지만 귀여운 판다빵 만들기를 가르쳐본 적이 있어요.”

중국요리의 특징을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께 여쭙보지 않았으면 실수할 뻔했습니다.





“베트남 요리는 분짜와 반미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베트남 전통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렘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구입하고, 요리를 만들 때 아이들이 말을 역할도 미리 생각해보고, 요리 키트 꾸러미를 만들고 품이 드는 과정이었지만 새로운 시도가 주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리로 함께하는 가족요리활동 시간!
화면으로 인사를 나누며 일일 강사 어머니와 친구의 설명을 따라서 탁탁탁! 조물조물~ 지글지글~

친구들은 어디쯤 만들고 있는지,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서로 살피고 기다려주면서 박자를 맞췄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완성된 감자핫도그&판다빵 그리고 분짜&반미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 맛도 좋고, 뿌듯하고, 가족 분위기도 화기애애~ 코로나도 물러가게 만든 행복한 ‘가족요리활동’ 시간이었습니다.

'꿈'을 향한 도움닫기, 가족연합캠프

복지2팀 허준호 사회복지사



2020년 1월, 월드비전과 파트너십을 맺고 중랑구 면목동 일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꿈꾸며 성장해갈 수 있도록 8년 동안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꿈꾸는 아이들, '꿈 디자이너'가 되고자 아이들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이들을 응원하는 특별한 면접을 거쳐 11명의 '꿈 디자이너' 친구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꿈꾸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던 친구들 앞에 코로나19라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내고자 부모님과 아이들이 계획한 가족 연합 캠프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치밀한 계획만이 안전을 만든다! 캠프 궁리!

코로나19로 2020년 꿈 디자이너 (꿈:디)들을 위해 마련된 '친해지기 캠프'가 취소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한 '꿈:디'는 아쉬움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꾸러냈던 짐 보파리를 다시 풀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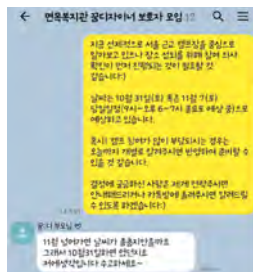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11명의 꿈:디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머리를 모았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캠프를 준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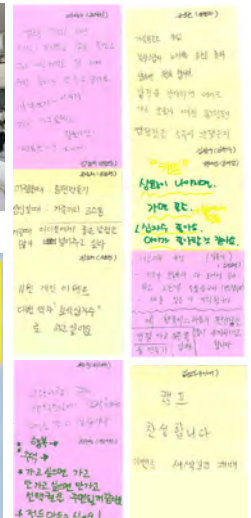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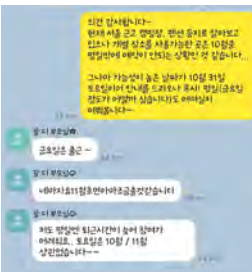
• 꿈 디자이너 아이들 캠프 기획 회의



• 꿈 디자이너 보호자 캠프 기획 회의



• 늦은 밤까지 뜨거운 단톡방



• 보호자 코로나19 예방 의견



물든 낙엽과 함께 한 15시간의 추억 : 꿈:디 캠프가다

늦가을 추위를 걱정하던 아이들의 걱정들을 싹 날릴 푸른 하늘! 가을 햇살을 맞으며 하나 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손 소독하고 '뽀!' 체온 재며 문진표 써봅니다.

"우리 진짜 캠프가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안전하고 즐거운 꿈꾸는 아이들 캠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와!!!! 출발한다!"



• 자! 여기보세요~ 찰칵!!



• 우리 가족이 제일 잘하는 레크레이션!



• 꿈:디 '박'을 터트려라!!



• 꿈:디 부모님을 위한 힐링 특강!



• 코로나19로 힘든 의료진에게 편지를~



• 캠프의 꽃! 숯불 바비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당일치기로 일정을 계획하였지만, 첫 캠프의 기대감에 피곤한 기색도 없이 모든 가족이 하나 되어 함께 즐기고 어울렸습니다.



“서로 친해지려면 몸을 부대껴야죠!” 의견에 준비한 ‘Fun Fun한 우리 가족 레크레이션’,
꿈과 소망을 담은 박 터트리기, 꿈:디가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모님들을 위한 힐링 특강,
“선생님! 코로나로 힘든 의료진, 구급대원에게 편지 써요!” 희망 나눔 편지 쓰기 and 고대하던 숯불 바비큐까지!!
아이들, 부모님들과 의논하며 계획한 모든 일정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꿈꾸고 이루기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To be continued!

“선생님 여기 서 보세요.
꿈:디 사진 찍어드릴게요!”
“우리 다음에는 더 잘 계획해서
1박 2일로 또 캠프 와요!!”



오래 준비한 만큼 밝고 열심히 뛰어놀던 우리 사랑스러운 꿈 디자이너 친구들과 가족 모두가
든든한 마음과 튼튼한 자신감으로 멋지게 채워갈 앞으로 삶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가자! 꿈: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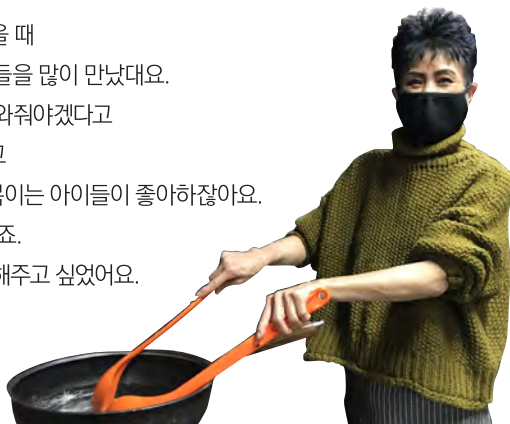
엄마같은 마음으로 더...

복지3팀 강예정 주임

마신평복이 사장님은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떡볶이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바쁘신 사장님은 인터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아이들을 위해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는 사장님은 어떻게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예전에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했을 때
독거노인, 소년, 소녀 아이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대요.
나중에 사업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꼭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아들이 떡볶이 후원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떡볶이는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 전화했죠.
간식이지만 아이들이 한 끼라도 배불리 먹게 해주고 싶었어요.
복지관에서 온다고 하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원래도 맛있지만 엄마같은 마음으로
더 맛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죠.”



“바라는게 있다면 힘 닿는데까지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떡볶이 주고 싶어요~”



떡볶이 후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능기부도 하고 있는 마신평복이 사장님!
이웃들도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아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후원자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사랑의샘터 ECB 오운문화재단 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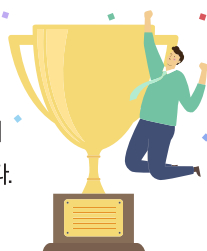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샘터 ECB 오운문화재단 제20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

사랑의샘터 ECB는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지역연계 후원조직으로 2004년 7월 발족하여 중랑구 내 위기긴급가정을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2020년 10월까지 총 299명에게 생계비, 주거비, 양육비 등 약 2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에서 시작한 단체가 15년 넘게 꾸준히 한 뜻을 이어가고 긴급 지원을 위해 필요에 따라 체계와 절차를 변화하며 도약한 것이 높게 평가되어 본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상금 3천만원은 중랑구 내 위기긴급가정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여 그 뜻을 더욱 견고히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면목데이케어센터 2019 장기요양기관 평가 전국 1등

면목데이케어센터가 2019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99.75점(100점 만점) 가점 3점, 총 102.75점으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가족같이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직원들과 서로를 배려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어르신들 모두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만든 값진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안한 노후를 돌보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코로나19 이전에 촬영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눔이 우리 이웃의 삶에
희망과 웃음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에 참여해주신 분들(2020년 1월-12월)

일반후원

고재은 고경환 고연주 고은미 김가령 광경애 박수미 권오신 권용환 권현일 길기찬 김가령 김가희 김건희(이상숙) 김경대 김경아 김광일 김나경(이상숙) 김낙현 김다속 김도형 김동명 김두용 김무성 김미정 김병기 김성순 김성중 김소년 김수희 김아진 김애라 김영미 김영석 김영선 김예숙 김옥희 김용범 김욱이 김응수 김중수 김지혜 김태수 김호진 남두표 노경호 노은한 류유희 류재준 문병성 문병진 문분자 민기성 박상현 박연일 박유미 박준규 박정순 박진구 박혜영 박혜옥 박흥수 백정란 백진경 변혜경 서광일 서우석 서재순 서지민 석화선 성기동 손승희 손은지 송명길 송민준(정수정) 신민규 신수용 신승자 신준호 심세환 심은서 안성수 안애선 안정순 안준호 안홍국 어윤호 엄정도 여윤수 오근택 오미애 오수완 오윤영 유경중 유경화 유수빈 윤나영 윤서영 윤은숙 윤창수 윤춘선 윤희자 이루미 이명희 이미영 이상수 이상찬 이상훈 이석호 이세연 이소연 이어진 이연호 이영호 이원경 이인오 이정미 이정숙 이정우 이종국 이종길 이종용 이종일 이준행 이자선 이찬열 이현국 이호준 임단비(최연희) 임단아(최연희) 임애순 임은이 장윤영 전인숙 전지수 전창근 정고운 정미정 정병호 정삼근 정승민(정남영) 정양길 정예람 정재우 정재현 정현숙 정현정 조명자 조성용 조인성 지상준 최광식 최병일 최봉주 최영주 최윤석 최은애 최정영(미르아카데미) 최진석 최태욱 최흥기 최효은 한은국 허경희 허유미 허철민 홍종득 황태철 황현숙 한중연(이문영)

IBK기업은행 경료경정중앙지점 광운참사랑 농협용마지점 동명교회 소래원 목천교회 면목종합사회복지관노래교실 미스터피자고대점 비상맘 우리은행 면목동지점 우편사업진흥원 제노에너지 (주)다르도시 중앙세무서 중앙구세정협의회 한국마사회중앙지사 한우리문구 현화메디컬약국 KT&G북서울본부

결연후원

강인숙 강희평 김미혜 김재근 김재민 금경애 류재안 박명철 양지혜 유재경 윤세호 이광영 이병길 이보섭(임효순) 이영우(최성란) 이정숙 이호식 장석봉 장일호 장혜림(문재윤) 정경우 정우영 정우창 정윤성 조성용 최지혜 강현우 김정래 김정연 마형중 송대석 송현화 신상욱 엄민숙 오석교 원종필 위성심 유재민 윤춘선 이유정 이창훈 이해영 장지연 전승익 지현미 최준돈 최진원(허선아) 국민연금공단대문중앙지사 동부교회 어린이재단초록우산서울북부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사회봉사센터 IBK기업은행

사랑의샘터 ECB

강동구 강중남 김길예 김숙현 김의근 김진무 김진희 나금환 류두수 미래공인중개소(박영란) 박정애 서영애 서일범 서진원 신진한 염보정 옛골영양탕(김해숙) 숯불집(오하근) 유연지 이낙용 이락현 이미랑 이현정 임용일 임한섭 소우가(정미경) 정혜숙 조양호 조현준 최미숙 최영우 홍정용 강길성 강성국 강소영 강영준 강욱갑 권혁신 김경미 김덕희 김석 김순금 김승오 김승재 김영경 김영미 김운수 김정연 김태우 김형기 김홍도 박열완 박영임 박지현 박현희 백재중 서민주 서병일 송용봉 신재선 심점섭 양삼숙 양수민 양지혜 엄현주 오명환 윤덕영 윤희방 이광호 이근술 이기영 이미현 이병호 이상우 이종욱 이해숙 임동준 자연식품(정영호) 장명식 장영태 장희식 장성화 정정순 조환동 최선용 최영순 최은순 최정란 최학수(최경수) 하태식 허윤미 황정룡 황정순 홍인실 오운문화재단

사업후원

동부교육지원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꿈을주는과일재단 월드비전 State Street Bank

물품후원

10그레 59살피자상봉종교점 경성유통기 국민연금공단대문중앙지사 김진숙 꿈을주는과일재단 낙원떡집 남부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대박떡집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동노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동부교육지원청 동부교회 동일교회 동아삼 링크퍼레이션 마신평북이 마형중 면목4동주민센터 명곡떡집 반포떡방 베스킨라빈스군자점 (주)북부운수 빈스로드 삼화페인트 서성민 서울우유협동조합 시루원 신용보증기금 신한금융지주 안미연 어린이재단 엘비이휴이엠 유니클로 윤남이 이종화 장정순 전국은행연합회 전영숙 정유준 (주)모노디오 중앙건강공동체 중앙세무서 중앙푸드마켓 면목점 중앙푸드 마켓뱅크센터신내점 한국양계농협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 이웃과 자신에게
삶의 행복과 감사를 느끼게 하는 값진 실천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2020년 1월-12월)

기업 및 지역주민단체(단체 봉사 활동) | 공인중개사중랑구지회 서울대중예술봉사단 사랑의샘터ECB 손뜨개모임(주민모임)
우리은행(면목동지점) IBK기업은행

주민교실 | 정수자(채색화) 최범자(영어교실) 최성자(면목동Artist) 강정희(민요교실) 최재선(성인노래교실)

비상 멘토 | 김혜원 김효임 박미정 이정택 이지희 박상철

칼림바 가족 연주단 | 민수아 송효미 윤빛나라

해(僞)바라기 | 김유정 양초명 윤예지 이나경 이지희 장민주 장준수

목청 | 김영웅

월드비전 꿈 디자이너 | 김경진 정다윤

데이케어센터 | 김명숙 김영순 김윤정 김현아 문금선 박민정 박윤석 양두진 이기수 조다영 한승연

정서지원(아동정서지원, 학습멘토링 등) | 김민영 김지수 김울기 박신영 배영민 우경민 이유빈 이정미 최은서 한동훈

행정업무 지원 | 김수현 도유화 장예진 박정현 박지혜 권도연 김경민 윤채연 김선우 이예은 박지혜

학교연계 대학생 봉사자 | 윤신혜 박소윤

아동 공부방 | 서일대학교식품영양학과동아리 안유림 위은서 유병욱 조민영 진시온

청소년자원봉사학교 | 권순재 문유은 엄혜란 오규영 유혜선 윤미르 이준희 이현주

경로식당(배식봉사 및 도시락배달) | 정용봉 정삼근 안현진 김은경 이주철 박상욱

아름인도서관 | 김수현 이연옥 이영애 전수환 조순복 최다영 한영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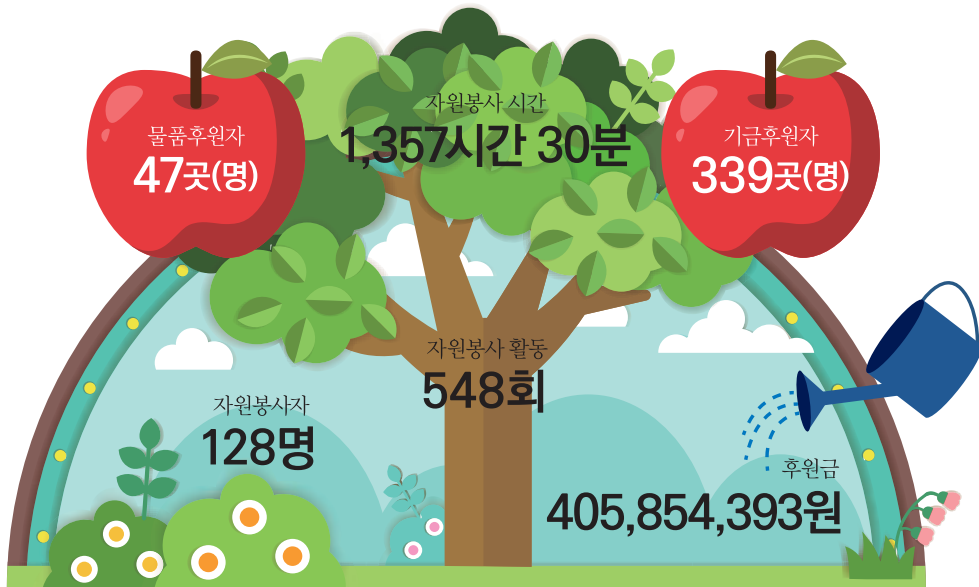
면반장 | 김규상 김한호 김희태 송정달 이덕수 이점섭 이주철 최갑현

기능회복실 | 오희환 이명순 조숙현 최신자

영상편집 | 이의환

생활복지캠페인(마스크 나눔) | 김현선 박예영 신혜인 이서현 이예은 임민석 임선애 임효순 정재호 정지훈 정유진 조순복 조은빈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눔과 실천으로
우리 마을 희망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 2020. 01. 01. ~ 2020. 12. 31.

* VMS 실적 기준입니다.

면종합사회복지관 2020년 1월 ~ 12월 후원금 정산내역(~12/31 기준)

수 입			지 출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이월금	비지정	16,676,231	사례관리사업	211,168,431
	지정	115,035,231	프로그램사업	107,204,336
	법인전입금	4,000,709	지역사회조직사업	45,606,355
비지정	정기	27,300,000	인건비	7,398,370
	일시	10,667,457	운영비	617,200
	결연	43,898,500	시설비	4,385,300
	ECB	46,450,000	기 타	20,780
지정	외부지원사업	216,538,436	총 계	376,400,772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후원금)	61,000,000	잔 액	165,165,792
총 계		541,566,564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 안내

후원활동 안내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어 자라납니다.

*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어요.

- **자동이체** : 복지관 후원계좌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은행 139073355-01-001

국민은행 038-01-0467-049

농협 100054-51-004490

기업은행 014-092950-01-014

예금주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 **CMS** :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후원금 전자결제 동의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 **모금함** : 상점, 은행, 병원 등 모금함통을 설치해주세요.
- **물품후원** : 생필품, 의류, 식품 등 물품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우리동네 나눔가게** :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후원합니다.

* 여러분의 후원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 장학기금,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문화체험
- 빈곤여성 자립지원,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지원
- 무의탁 독거노인 생계비, 의료비 지원
- 노인잔치, 경로식당, 장애인·어르신 나들이
- 기타 복지사업

※ 납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복지3팀 강예정 주임 070-5105-7512

자원봉사활동 안내

세상의 행복과 희망, 당신이 만들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어요.



※ 홈페이지 활동내용을 확인하신 후 전화, 인터넷,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

따뜻한 이웃이 되는 곳

행복한 성장을 돕는 곳

즐거운 소통이 있는 곳

더불어 삶을 잇는 곳이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면목종합사회복지관 ▼

www.truem.or.kr

페이스북

면목복지 ▼

www.facebook.com/truem500

카카오톡채널

면목종합사회복지관 ▼

유튜브

면목종합사회복지관 ▼



중랑구(SH) ·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운영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주소 (02257)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

TEL 02)436 - 0500 FAX 02)439 - 5111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2번 출구

버 스 용마산로 용마산역 하차(320, 70, 2012, 2227)

면목로 방약국 하차(240, 272, 2112, 2233, 2230, 2311)